

광주극장 지켜온 영사기 역사속으로



광주극장에서 지난 8일 영사기 교체 후 '마지막 상영회'가 열렸다. 마지막 상영을 앞둔 영사기 CP2000S의 모습. <광주극장 제공>

18년간 사용한 영사기 노후화로 은퇴 결정...관객들과 마지막 상영회 시민들 고향사랑기부금 5천만원 기부...4K영사기 교체 후 19일 재개관

지난 8일 오후로 개관 9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에서 의미 깊은 상영회가 열렸다.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의 디지털 영사기 'CHRISTIE CP2000S'가 18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관객들과 마지막 작별을 했기 때문이다. 극장의 심장처럼 영화의 빛을 비추던 디지털 영사기는 이날 상영을 끝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이날 오후 7시 30분. 하나둘씩 객석을 채운 관객들은 상영관 내부에 자리한 낡은 영사기를 향해 한 번씩 시선을 던졌다. 대학 시절 이곳에서 수많은 영화를 봤다는 중년의 신사, 주말이면 단골처럼 발길을 옮겼던 이들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기억을 꺼내놓듯 스크린을 바라봤다.

빛이 쬐고, 가상의 신도시 '타타빌'을 무대로 한 프랑스 고전 코미디 '플레이타임'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어느새 스크린 너머로 빠져들었다. 마지막까지 묵묵히 화면을 비추는 CP2000S는 그렇게 또 한 편의 영화를 완주했다.

이날 상영회는 2008년부터 18년간 광주극장의 디지털 상영을 책임졌던 CP2000S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CP2000S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도입된 최첨단 장비였다. 그러나 설치 당시 너무 큰 분체 크기 탓에 영사실이 아닌 상영관 뒤편에 억지로 자리를 잡아야 했던 '웃픈' 사연도 함께 얽혀 있다.

첫 상영작은 2008년 '땃미인'. 흰 눈이 내리는 북유럽을 무대로 펼쳐지는 흡혈귀 소녀의 이야기가 CP2000S의 빛으로 스크린을 수놓았다. 2009년 '워낭소리'의 흥행은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과 함께 영사기에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진화했고, 시간이 흐르며 CP2000S도 서서히 노후화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고장 시에는 직원들이 해와 직구로 부품을 구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관객들과 지역민들이 손을 내밀었다. 시민들은 고향사랑기부금 '특정사업기부'를 통해 뜻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5000여만원의 기부금은 새로운 4K 레이저 영사기 도입의 밑거름이 됐다. 4K 영사기는 향후 100주년을 향한 광주극장의 새 시대를 밝혀줄 주역이 될 예정이다. 극장의 변화에 마음을 보탠 이들도 있었다. 지역 예술단체 '다이나믹스케치그룹(DSG)' 소속



강미미 작 '광주극장'

윤연우, 박성완, 강미미, 최지선, 장다연 작가는 CP2000S를 그린 그림을 극장에 기증하며 정든 영사기의 마지막을 기념했다.

관객들도 진심을 전했다. "여기서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을 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영화를 비추주고, 늘 시간을 지켜준 영사기와 극장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이제는 4K로, 광주극장의 100년을 더 함께 걸었으면 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스크린 너머의 빛에 작별을 고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함께했던 CP2000S가 이제는 영사기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됐다"며 "새로운 4K 영사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주극장의 시간은 'play time',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공간이 많은 관객의 추억과 만남을 이어가는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극장은 9일부터 18일까지 영사기 교체를 위한 공사를 거쳐, 오는 19일 재개관한다.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K 시네마 광주' 특별상영회도 마련된다. 18년간 쉼 없이 영화를 비추온 한 대의 기계가 떠나간 자리,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시간이 쌓이기 시작한다.

윤연우 작 '영사기'

한강 소설 읽고 문화유산 탐방하고

순천문화원, 9월 3일까지 '길 위의 인문학'...야외수업 2회 진행

한강 소설도 읽고 지역 문화유산도 탐방하고. 여름 길목, 책과 인문학이 함께하는 강연이 펼쳐진다. 순천문화원(조옥현 원장)은 6월부터 오는 9월 3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길 위의 인문학'을 연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체부와 문예위가 주관하고 순천문화원이 주최한다. 강사는 김사인 시인을 비롯해 복효근 시인,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편집국장, 강수화 시인, 박경리 문학관 관장 하야무 소설가, 강향립 수필가 등이다. 특히 양관수 소설가는 7회에 걸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읽으며 토론도 진행한다. 또한 한강 소설들에 투영된 독특한 향기를 독자들과 나누며 소통할 계획이다. 야외수업도 두 차례 진행된다. 7월 9일 별량면 장산마을, 8월 27일 진주성을 탐방할 예정이다. 조옥현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한다"며 "문화계 저명한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 참여 문의 양관수 소설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뮤지션들 광주서 버스킹 대결

'버스킹 월드컵' 본선 국내외 32팀...10월 14~19일 문화전당 일원



'2024 광주 버스킹월드컵'에서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스페인, 아일랜드, 몽골, 카보베르데... 전 세계 14개국에서 몰려든 123명의 뮤지션들이 울가를 광주에서 뜨거운 음악 대결을 펼친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본선 진출팀 32개 팀(14개국 123명)을 5일 공개했다. 올해 대회에는 총 493팀(1029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아티스트들의 관심이 이어져, 본선 무대의 수준과 열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본선 경연에서는 국내 18팀, 해외 14팀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총상금은 4000만 원, 그중 최우수상 격인 '골든버스킹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선 무대에는 JTBC '슈퍼밴드' 우승팀 크랙샷(Crackshot), 힙합/R&B 아티스트 브라운티

거(Brown Tigger) 등 국내 인기팀은 물론,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의 싱어송라이터 마우라 델가도(Maura Delgado), 인도의 인디펜을 대표하는 밴드 타피(TAPI) 등 다채로운 국외팀도 포진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유명 음악 페스티벌 디렉터 1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본선 무대를 통해 눈여겨본 팀을 각자 기획하는 축제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공연과 쇼케이스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 형식은 국내외 음악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조한이 재단 축제사업팀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계 뮤지션들이 교류하고 협업하는 글로벌 음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려 '상교정본자비도량창법' 하반기 복원

불교 경전에 참회 방법 등 엮여...보성 우종미술관 소장 국가유산

'상교정본자비도량창법'(권 7-10권)은 고려 공민왕 때 제작된 것으로 학술적 역사적 중요성이 높은 유산이다. 현재 보성 우종미술관(관장 우영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제 875-1호)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불교의 여러 경전에 있는 참회 방법, 내용을 체계로 엮은 '자비도량창법'을 바르게 교정하고 정리했다. 10권 가운데 권 7-10이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종미술관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창법'이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선정돼 보존처리가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 결과 표지와 내지 분리, 책 끝의 손상, 내지에 결손부가 발견돼 보존처리 필요성이 대두했다. 책 끝에 있는 간행기록에 따르면 '상교정본자비도량창법'은 공민왕 1년(1352) 수한, 신규 등의 주선에 의해 연하가 글씨를 쓰고 요심 등이 판을



상태조사 모습. <우종미술관 제공>

새겼다. 시주는 정서 등이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우영인 관장은 "이번 복원처리작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고미술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복원이 마무리되면 전시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